

금속노조는 총파업으로

6월 17일, 8차 중앙교섭 결렬 선언...7월 총파업 예고
장창열 위원장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박한 요구 대담 없어 답답”



금속노조가 2025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7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추가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장창열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

까지 나온 제시안은 조합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생명과 안전이라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대담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정부 눈치 보지 말자고 했으나 제시안이 없었다. 교섭 결렬이다”고 말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노동계가 작년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노동계도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보고 사용자협의회도 의견수렴하여 최선을 다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정교섭 ▲모든 노동자 작업증지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회계공시·타임오프 즉시 폐기를 걸고 7월 16일 총파업 나선다.